

## 학부 한영번역에서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사용: 문제 진단 및 전문가 번역과의 비교

최 경 희  
(평택대)

### 1. 들어가는 말

학부에서의 번역수업, 특히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수업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다. 1970년대 말에 설립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시작으로 하여 그간 대학원 위주의 통번역과정만 있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부에도 통번역과정이 개설되었다(Yeom 2001 참조). 자체 학과나 그에 준하는 통번역과정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어느 특정 학과(예, 영어영문학과)에서 한두 과목 정도 통번역 과목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화의 가속화 및 대학 졸업 후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부에서의 통번역교육을 통한 실용적인 교육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그 한 가지 예로 외국어 방향으로의 통번역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어 통번역과정의 경우는 통번역 자체뿐 아니라 영어실력 향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영어는 세계어(lingua franca)에 해당하는 언어로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실력을 늘리기 원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어 실력향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통번역 기초능력의 연마와 더불어, 학생들이 통번역을 전공으로 선택한 주요 요인에 해당한다(조성은 2007:174, 남원준 2009: 25, 이상빈 2013: 98)<sup>1)</sup>. 또한 영어실력 향상과 통번역 기초능력은 학부 통번역 과정에서 추구하는 해당 과정의 목표와 직결되는 것으로, 전문통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번역대학원과 차별되는 대목이다(Yeom 2001: 178, 김순영 2006: 33, 조성은 2007: 175, 남원준 2009: 27, 조성은 2011: 94, cf. 김련희 2011: 2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 입학 후 영어 방향으로의 통번역 수업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나라 번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영어 방향으로의 번역 교육은 졸업 후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 번역 시장은 유럽에서 처럼 기본적으로 모국어 방향으로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도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Lim 2005). 이는 번역을 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드물기 때문인데 이러한 특수 상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 방향으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은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보다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 효율이 높다. 참고로, 서울에 위치한 통번역대학원의 효율을 살펴보면 모두 외국어로의 번역효율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례로 호주와 같이 효율과 언어방향이 서로 무관한 경우, 즉 일반적으로 모국어 방향으로만 번역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율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비교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면 자기 발전의 기회는 물론 수입 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의 통번역, 더구

1) 통번역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순위 상으로 보면, 영어실력 향상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이 통번역 기초능력 연마로 조사된 바 있다(조성은 2007: 174, 남원준 2009: 25, 이상빈 2013: 97-98).

나 학부에서의 한영 통번역 교육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한영번역을 지도하는 대부분의 교사가 영어가 외국어인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이창수 2014: 403, 420) 교사가 자신의 비 모국어 방향으로 번역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번역 연구 관련 문헌을 살펴보아도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이 많고, 특히 번역교육에 대한 연구는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연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필요한 도움을 얻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다(예외, Lim 2005, 이창수 2014). 이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번역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에서의 한영 번역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 이론인 체계기능주의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sup>2)</sup>에서 설명하는 주제어(theme)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3)</sup>. 우선,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은 “[텍스트]분석 모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로(Munday 2012: 137) 그동안 많은 번역학자들이 번역학 이론에 사용한 바 있는데, 주제어에 대한 이론의 경우도 그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Baker 1992/2011, Hatim and Mason 1990, 1997, House 1977/1997, Munday 2000, Kim 2008).

또한 본 논문에서 주제어 특히 한영번역의 주제어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먼저, 한국어나 영어 모두 주제부가 절(clause)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구성요소지만(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Kim et al. forthcoming), 한국어에 비해 영어의 어순이 경직되어 있어(곽성희 2006: 114) 한영번역에서 영어 도착어 텍스트의 주제부 위치를 그르칠 경우 영한번역에 비해 파장이 크기 때문인데, 이러한 차이를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분석결과 참조). 또한,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영번역 교육에 있어서의 주제어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학부에서의 한영번역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2)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 이론 이외에도 여러 많은 방법론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해당 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 및 체계기능주의 언어학과 관련된 모든 용어는 통번역 학계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가 임의로 채택한 것임을 밝힌다.

판단된다<sup>4)</sup>. 이러한 필요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인 중 하나로 작용되었다.

상기 동인을 출발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 학생들의 한영 번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번역 이슈(또는 번역 문제), 특히 주제어와 관련하여 주로 나타나는 번역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러한 번역 이슈를 전문번역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sup>5)</sup>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길잡이로 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출발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첫 단계로 학부 수업에 사용한 뉴스 텍스트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체계기능주의 언어학(SFL)의 주제어(Theme) 이론과 한영번역 시 영어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적용

주지한 바와 같이 한영번역은 한국어 모국어자의 경우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으로, 영한번역과는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 어순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비해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영번역 시 원문에 대한 이해가 선결된 후에는, 영어의 어순에 대한 지식이 한영번역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당 절(clause) 및 문장의 앞부분에 어떤 구성성분이 위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는데, 이는 절의 앞에 오는 구성성분을 바로 잡아야 다음 내용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 나오는 예(Baker 1992/2011: 119-120)를 보면 문장 구성성분의 순서가 자연스러운 내용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1)과

- 
- 4) 외국어 방향으로의 통번역 수업, 특히 학부 번역수업에 있어서 이론이 중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 교육의 필요성은 번역학자뿐 아니라(김순영2006, Park 2007) 학부생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남원준2009: 34-35).
- 5) 학생 간 번역 비교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학생과 전문가의 번역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3) 사이에 들어갈 문장을 선택할 때, 아래의 셋 중 가장 적합한 것은 (2)c일 것이다. 이는 ‘But’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성분<sup>6)</sup> 중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할 내용을 고를 때 전혀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앞 문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 ‘in order to predict these positions correctly’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 Ptolemy’s model provided a reasonably accurate system for predicting the positions of heavenly bodies in the sky.
- |  |  |   |
|--|--|---|
| a. But Ptolemy had to make an assumption that the moon followed a path that sometimes brought it twice as close to the earth as other times, <u>in order to predict these positions correctly.</u> | b. But an assumption that Ptolemy had to make <u>in order to predict these positions correctly</u> was that the moon followed a path that sometimes brought it twice as close to the earth as other times. | c. But <u>in order to predict these positions correctly</u> , Ptolemy had to make an assumption that the moon followed a path that sometimes brought it twice as close to the earth as other times. |
|--|--|---|
- (3) And that meant that the moon ought sometimes to appear twice as big as at other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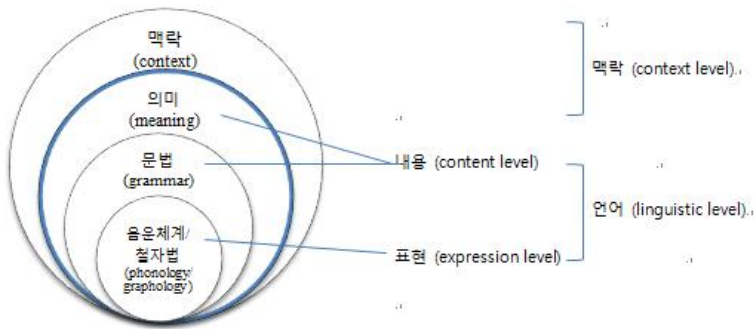
상기의 내용은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의 주제어 개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aker 1992/2011 Chapter 5). 알려진 바와 같이,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사용, 특히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안에서의 언어의 사용을 중시한다.

아래 도표 1에는 이러한 언어의 사용을 보여주는 언어의 층위개념(stratification)이 소개되어 있다. 크게 언어 층위(strata 또는 level)와 맥락 층위로 구분되는데, 언어 층위는 내용 층위(content level)에 해당하는 의미와 문법, 그리고 표현 층위(expression level)에 해당하는 음운체계/철자법 등<sup>7)</sup>으로 나뉜

6) 주어 앞에 등장하는 접속어(예. ‘그러나’, ‘그리고’)(textual theme) 및/또는 글쓴이의 감정이나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예. ‘놀랍게도’, ‘꽤 괜찮게도’)(interpersonal theme)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Halliday and Matthiessen 2004: 81 참조).  
 7) 음운체계/철자법 층위 아래에 다른 층위(예. 음성체계)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다. 이들 층위 중 의미(meaning)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동 의미는 명제적 의미(ideational meaning), 대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그리고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의 세 가지 의미 (또는 메타기능(metafunction)으로 불림)로 구성된다. 이들 의미는 각각 하위 층위에 해당하는 문법에 의해 실현되는데, 텍스트적 의미를 실현하는 문법요소로는 주제어 체계(system of Theme)와 정보구조 체계(system of Information System)의 두 가지 주요 체계가 있다(Egins 2004: 298). 이 중 정보구조 체계는 구정보(Given)와 신정보(New)를 구성요소로 하는 억양 선택(intonation choice)과 관련이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제어 체계만 사용하기로 한다<sup>8)</sup>.

<도표 1> 층위 개념도(stratification)



상기 언급한 주제어 체계는 주제부(theme)과 설명부(rheme)라 불리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부는 해당 절의 첫 구성성분을 가리키며 절의 방향(angle)을 나타내고, 설명부는 주제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절, ‘I am a teacher’와 ‘The pros and cons of death penalty have long been debated’는 주제부가 각각 ‘I’와 ‘The pros and cons of death penalty’이며 나머지 부분은 설명부에 해당한다.

이들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제부가 주어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주제부가 주어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이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자를 무표적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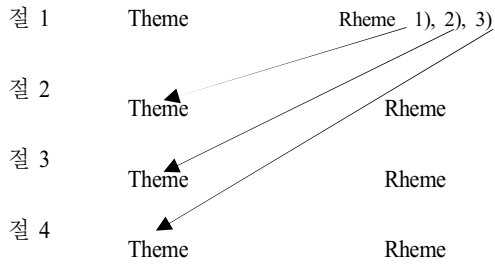
8) 프라하학파는 주제어 체계와 정보구조 체계를 분리하지 않는다(Baker 1992: 121).

제부(unmarked theme)라 하고 후자를 유표적 주제부(marked theme)라 한다. 유표적 주제부의 경우에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예. ‘in the morning’, ‘in Seoul’)<sup>9)</sup>가 포함되는데, 앞서 기술하던 내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단계(phase)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즉 시간이나 장소, 등장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앞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텍스트 내용이 끊기는 “불연속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Martin and Rose 2007: 192). 위인전기나 자서전에 등장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예. ‘In 1993’, ‘In Busan’)가 그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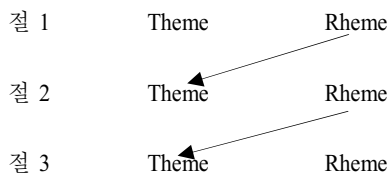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주제어 개념은 절 단위에만 국한되지 않지 않고 문장과 문단 및 나아가 전체 텍스트에 영향을 준다. 즉 무엇을 주제부로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는 텍스트를 조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Baker 1992/2011: 126). 한 가지 예로서, 주제부의 선택과 배치는 텍스트 전체적인 가독성(readabilit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 번역 시 주제부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번역본의 가독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Huang and Kim 2012, Kim 2008).

또한 주제부 전개방식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제부 반복(theme reiteration), 복합적 설명부 패턴(multiple Rheme pattern), 지그재그 패턴(zig-zag pattern)이 있다(Eggins 2004: 324-326). 주제부 반복은 주로 구어체에 사용되는 패턴으로 대화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명사의 반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예. ‘you’, ‘I’, ‘he’, ‘she’, ‘they’). 나머지 두 패턴은 문어체에 많이 사용되는데 복합적 설명부 패턴은 텍스트 앞부분에 나오는 절에서 두 개 이상의 설명부가 나열된 이후에 각각의 설명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예. Today I am going to talk about A, B and B. First, A is.... then, B.. Finally, C...).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9) SFL에서는 이를 Circumstance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세 번째로, 지그재그 패턴은 앞 절에 나온 설명부 전체나 그 일부가 다음 절에서 주제부로 사용되고, 이 주제부가 사용된 같은 절의 설명부가 그 다음 절의 주제부가 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I handed the baby to them and he kept on crying’에서 첫 번째 절에 나온 ‘the baby’는 첫 절의 설명부에 속하지만 두 번째 절에서는 결속구조 관계에 있는 지시어 ‘he’로 바뀌어 설명부 기능을 하고 있다(예문 출처 Eggs 2004: 325).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이 패턴이, 유표적 주제부(marked theme)와 더불어, 하기에서 주로 사용될 분석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 3. 데이터와 번역 방법

본 논문에 사용될 데이터는 원문 2건과 학생 번역문 및 전문 번역가의 번역문이다. 원문은 뉴스 기사로, 일간 신문 경제면에서 발췌한 기사 1건과 주간 시사 잡지에서 발췌한 사회면 기사 1건인데 공백을 제외하고 각각 510자와 530자이다. 학생 번역문은 상기 원문을 학부 3, 4학년으로 이루어진 학생 12인이



2016년 1학기 수업과제로 제출한 내용 24건이고, 전문번역가 번역은 번역가 2인(각각 20년 이상의 전문 번역 경력)이 한 번역 4건이다. 따라서, 학생과 전문번역가를 합하여 14인이 각각 2개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총 28건이 된다.

이들 데이터에서 주 관심사인 학생 번역이 이루어진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생 번역은 3단계, 즉 개인 번역, 그룹 토론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을 거쳤다. 개인 번역은 2주에 한 번 과제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로부터 개인 번역 체크 리스트를 받았다. 개인 번역 체크 리스트는 빠진 문장이 없는지 점검하는 기본적인 항목에서부터 사전 사용법, 간단한 이론 등 번역시 도움이 될 만한 점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교사는 개인 번역시 학생들이 표현이나 대응 텍스트를 찾을 수 있도록 리서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번역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번역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번역한 내용은 그 다음 주 수업시간에 가져와서 그룹 토론을 거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교사는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원문 이해 관련 문제, 용어, 표현 부분을 설명해주거나 알려주고 대응 텍스트가 있는 경우(두 텍스트 중 경제 기사의 경우) 이를 제시하는 등의 도움(scaffolding)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번역 과정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유와, 더불어 학생들이 영어 번역본의 구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논문에 사용된 학생번역 데이터는 이러한 두 단계를 거친 후 생산된 번역물이다. 이후 학생들이 번역본을 수정하여 제출 후,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고 샘플 번역을 제시 해주었다.

#### 4. 분석 결과

한국어 원문과 학생 번역본의 분석 결과, 학생들은 한국어와 영어 어순 및 주제부와 설명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생이 번역문을 한국어 어순대로 옮김으로써 영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부와 설명부의 전개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는데, 이는 원문 간섭 현상(Toury

1995)과, 더 중요하게는 주제부 전개방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 간접현상의 경우, 모국어의 간접이 외국어의 간접보다 일반적으로 더 심한 점을 고려해볼 때(Seleskovitch 1994: 120), 모국어에서 외국어 방향으로 번역을 처음해보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히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모국어 원문 간접현상에 의한 주제부 전개방식의 이해 결여는 도착어인 영어의 주제부 전개방식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이해 결여는 전문 번역가의 번역과 대별되는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하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그재그 패턴과 유평적 주제부에 대한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4.1 지그재그 패턴 1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그재그 패턴은 영어 문어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제부 전개방식인데, 한영번역 시 학생들이 이러한 전개방식을 원문 간접 현상으로 인해 한국어 원문의 어순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문 1에서 절 번호 2-1(한국어 원문)을 보면 주제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규모 내수 정책에도 불구하고’이고 설명부는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지난해 성장률...’이다. 그런데, 절 번호 2-1의 주제부는 그 앞에 나오는 절(절 번호 1)의 설명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절(2-1)의 설명부가 절 번호 1의 설명부에 더 근접해 보인다. 즉, 지그재그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문 1〉 지그재그 패턴 1: 한국어 원문과 학생 번역

CC*	C**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0***		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3.2% -> 3.0%로 낮춰
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3.0%로 낮췄다.
2	1	<b>또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규모 내수부양책에도 불구하고</b>	지난해 성장률이 2.6%로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견돼
	2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0		The Bank of Korea	Lowers the Economic Growth Forecast from 3.2% to 3.0%
1		The Bank of Korea	lowered the economic growth forecast from 3.2% to 3.0%.
2	1	<b>Furthermore, despite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rojects to boost domestic economy,</b>	The growth rate of the previous year is still projected at 2.6% falling short of the estimate.
	2	The sluggish growth	is causing growing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long term economic low growth.

\*는 절(clause)을 의미하고 \*\*는 2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복합절(clause complex)를 가리키는데, 문어체의 경우에 복합절은 문장에 해당한다. \*\*\*는 뉴스기사의 제목을 의미한다.

위의 예문 1의 하반부에 위치한 학생 번역을 보면<sup>10)</sup>, 한국어 원문의 주제부를 영어 번역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urthermore, despite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rojects to boost domestic economy’). 이를 지그재그 패턴을 사용해서 적용해보면, 원문의 주제부(‘또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대규모 내수부양책에도 불구하고’)는 이전 절의 설명부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므로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를 주제부보다는 설명부의 일부로 보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것이다.

또한 번역본에서는 절 2-1의 한국어 설명부 중 이전 절에 소개된 부분(‘지난해 성장률이’)을 번역본의 주제부로 만드는 것이 텍스트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성장률(last year’s growth rate)’이 그 이전 절에 해당하는 절 번호 1에는 문자 그대로(‘지난해 성장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는 항목의 사용으로, 절 번호 2-1의 ‘지난해 성장률’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두 항목 사이에 표층 결속구조 관계(cohesive relation)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Baker 1992/2011: 203 참조).

이를 두 전문 번역가의 번역으로 보면, 아래 예문 2와 같다.

10) 본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학생 번역은 본 논문에 사용된 학생 번역 중 가장 일반적인 예에 해당한다.

〈예문 2〉 지그재그 패턴 1: 절 번호 2-1에 대한 전문가 번역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전문가 번역 1	[...], <u>last year's growth rate</u>	will be 2.6%,
	which	will fall short of the originally forecasted level despite the large-scale government measure [...]
전문가 번역 2	As <u>last year's growth rate</u> (2.6%)	is also predicted to be below its earlier forecast despite the government's large-scale [...] packages'

예문 2의 두 번역 모두, ‘지난해 성장률(last year's growth rate)’을 영어 번역문의 주제부로 잡고 있고 부사절 ‘despite’이하는 문미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기 예문 1에서 설명한 지그재그 패턴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Also, last year's growth rate will be 2.6%, which will fall short of the originally forecasted level despite the large-scale government measure [...]’와 ‘As last year's growth rate (2.6%) is also predicted to be below its earlier forecast despite the government's large-scale [...] packages’).

#### 4.2 지그재그 패턴 2

하기 예문 3은 본 논문에 사용된 두 번째 텍스트의 일부로, 지그재그 패턴이 연이어 여러 개 나오고 있어 학생들의 번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절 번호 1은 본문의 첫 문장으로서 원문의 설명부 ‘있다’를 번역본에 주제부 ‘There’로 옮길 수 있으며, 같은 절에 있는 ‘개념’ (the concept)은 해당 절의 설명부의 일부이자, 두 번째 절의 주제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학생들도 대체로 큰 문제없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절의 경우는 원문에 ‘우리나라는’이 주제부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절(특히 설명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학생 번역을 보면(절 번호 3-1) ‘Korea’를 주제부로 만들어 원문의 순서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원문 맨 앞에 명시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절 번호 4의 경우 한국어 원문에는 ‘이유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는

절 번호 3에 나오는 내용과 연계가 미약해보인다. 학생 번역에서는 ‘this result’로 절 번호 3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지칭함으로써 앞 절과의 연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모습은 보인다. 다만, 절 번호 2와 더불어 길지 않은 텍스트의 첫 부분에서 대명사가 다소 많이 사용된 감이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보인다(절 2: ‘it’, 절 4: ‘this’).

〈예문 3〉 지그재그 패턴 2: 한국어 원문과 학생 번역

CC	C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1		생애 선택 자유라는 개념이	있다.
2			유엔 지속가능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3	1	<b>우리나라는</b>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3년 간 펼친 이 조사에서 4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2		미국(15위)과 싱가포르(24위)보다는 한참 낮고,
	3		일본(46위) 바로 아래다.
4		<b>이유는</b>	사회적지지, 부패인식 그리고 생애선택자유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1		There	is a notion called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2		It	was referred to as by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in the World Happiness Report
3	1	<b>Korea</b>	ranked 47 <sup>th</sup> among 157 nations in the research conducted for 3 years,
	2	which	is very low compared to USA (15th) and Singapore (24th)
	3	and	is right under Japan (46th).
4		<b>This result</b>	is caused by low figures in factors such as ...

전문가 번역에는 상기 언급한 지그재그 패턴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절 3-1과 절 4의 경우, 바로 전에 나오는 절의 내용 중 일부나 전체의 요약 내용을 사용하여 해당 절의 주제부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절 번호 3-1(‘우리나라는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3년간 펼친 이 조사에

서...')의 경우 두 번역가 모두 앞에 나온 절(절 번호 2)의 설명부에서 일부('세계행복지수', 영어로는 'World Happiness Report')를 취하여 주제부('the report')를 만들었다. 아래 예문 3에 있는 전문번역가의 번역에서는 이를 두 절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 절 번호 3-1의 '조사(survey)'와 절 번호 2에 나오는 '지수(the report)'와의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 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문 번역가는 두 언어 간(inter-lingual)의 전환뿐 아니라 각 언어 안에서의(intra-lingual)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문에서 절 번호 4는 그 앞에 나온 절 전체를 요약한 내용에 해당하는 'Korea's ranking low'를 주제부로 사용하고 있다(다른 전문 번역가는 '이유'를 살려서 'the reason for Korea being ranked as such'로 번역). 이는 예문 3의 학생 번역에서 대명사를 다소 과도하게 사용한 것에 비해 요약 내용을 명시해줌으로써 의미 전달이 보다 명료해 보인다.

〈예문 4〉 지그재그 패턴 2: 전문가 번역

CC	C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1		There	is a concept called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2	1	The concept	was mentioned in the World Happiness Report,
	2		releas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for the United Nations.
3		<b>The report</b>	was a result of the survey of 158 countr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4		<b>According to the report</b>	Korea ranked 47th, far lower than the US (15th) and Singapore (24th), and just one notch below Japan (46th).
5		<b>Korea's ranking low</b>	was due to low scores in such factors as [...].

11) 다른 전문 번역가의 경우는 '조사'를 the report로 받아서 한 절로 번역하고 있다 ('In the report conducted of 158 countries worldwide over three years, Korea ranked 47th,...')

### 4.3 유표적 설명부(marked theme)

상기 ‘2. 체계기능주의 언어학(SFL)의 주제어(Theme) 이론과 한영번역 시 영어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적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표적 주제부는, 이전 절의 설명부에 나오는 정보를 다음 절의 주제부로 만들어서 정보의 연속성을 보존하려는 지그재그 패턴과 달리, 이러한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텍스트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 5는 상기 예문 1의 두 문장에 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고, 또 지난해 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문 5에 나오는 내용은 그 위의 내용과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앞선 내용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라면 본 내용은 한은 총재가 등장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는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기사의 본문에는 이러한 한은 총재의 언급에 이어 한은 조사국 국장의 언급도 뒤따라 나온다).

학생의 번역은 한국어 원문 어순에 따르고 있지만, 유표적 주제부를 적용해 보면 절 3-1에서 원문의 주어(‘이주열 한은 총재는’)를 설명부로 보내고 시간이 나 장소에 해당하는 부사구를 주제부로 설정하여 유표적인 주제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문 5〉 유표적 주제부: 원문과 학생 번역

CC	C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3	1	이주열 한은 총재는	<b>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t;&lt;...&gt;&gt;*다고 밝혔다.</b>
	2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발표한 3.2%에서 0.2% 포인트 내리기로 했>>
4	1		<<...>>으로 전망했다.
	2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에서 1.4%로 낮아질 것>>

3	1	Lee Ju-yeol, Governor of Bank of Korea	said that
	2	the growth outlook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this year	will be lowered by 0.2% from the value of 3.2% he announced in October,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 presiding over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in the headquarters of Bank of Korea in Jung-gu, Seoul on 14th.
4	1	He	also prospected that
	2	the rise of consumer price	will be lowered from 1.7% to 1.4%

\*는 인용문이 해당 절 안에 끼어들어 있음(interrupted)을 가리킨다.

전문번역가의 번역에서는, 두 번역 모두 주어(‘이주열 한은 총재는’)를 주제부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주제부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 6에 제시된 전문가 번역의 경우 세 번째 문장의 주제부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On January 14’로 되어 있고 주어 ‘Governor Lee Ju-yeol’은 설명부의 일부로 처리되었다<sup>12)</sup>. 본 번역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분(‘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은 다른 문장(문장 4)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어 원문에서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모두 같이 처리할 경우 주제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2) 다른 전문번역가의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를 주제부로 처리했다(‘In a press conference held after a 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 at the central bank’s headquarters in Jung-gu, Seoul on the 14<sup>th</sup>’). 이 번역은 상기 전문가 번역에 비해 주제부가 상당히 길고 일부 내용(‘주재한’)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주어가 아닌 부사구를 주제부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번역과 차별된다.



〈예문 6〉 유표적 주제부: 전문가 번역

CC	C	주제부(Theme)	설명부(Rheme)
3	1	On January 14,	Governor Lee Ju-yeol of the Bank of Korea said that
	2	the central bank	decided to bring down this year's GDP growth forecast by 0.2 percentage point from the October forecast of 3.2%.
4	1	He	announced such a decision at a press conference that followed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eeting,
	2	which he	presided over at the Jung-gu Head Office in Seoul.
5	1	He	also anticipated that
	2	this year's inflation rate	would drop from the original projection of 1.7% to 1.4%.

#### 4.4 오류 유형 별 빈도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양이 크지 않고 정성적 분석에 초점이 있어 정량적 분석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로 번역 이슈의 유형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나 번역 이슈가 나타나는 발생 빈도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논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설명한 세 가지 번역 이슈 유형에 대한 수치를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유형 별 번역 이슈 발생 빈도

	지그재그 패턴 1	지그재그 패턴 2	유표적 주제부
학생 수	9/12	6/12	11/12
비율	75%	50%	92%

표 1을 보면, 세 가지 모든 유형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 번역이 번역 이슈를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유표적 주제부 유형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그재그 패턴 1과 2의 평균 값은 62.5%이나 유표적 주제

부는 92%로 거의 모든 학생이 텍스트 내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입을 보여주는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영 번역 교육 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료된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에서 설명하는 주제어 개념을 이론 틀로 삼아 학부 학생들의 번역 이슈를 살펴보고 전문가 번역과 비교해보았다. 비교 결과, 학생 번역은 한국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 등의 구성요소는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번역과 달리 영어의 주제부 전개방식(특히 유표적 주제부)을 따르지 않고 한국어 원문의 어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제어 개념으로 한영번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상기에서 살펴본 뉴스 텍스트의 번역이슈에 일부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번역 교실에서 (예를 들어, 뉴스 텍스트의 경우) 두 언어 각각의 주제부 전개방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번역을 공부하는 학부생의 경우 영어의 주제부 전개방식의 학습은 영작문에도 활용할 수 있어 번역 뿐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뉴스 텍스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텍스트 유형 별로 분석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영어 주제부 전개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한국어 원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국어 주제부 전개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한 두 언어 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는 영한 번역에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 등 타 분야와의 협력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곽성희 (2006) 『번역 입문』, 서울: 이지북스.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과 도입」,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27-43.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에 관한 일고찰 -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3(1): 21-51.
- 조상은 (2011) 「ST (Sight Translation)을 중심으로 한 학부 통역 교육 제안」, 『통역과 번역』 13(1): 89-115.
-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1-191.
-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2-113.
- 이창수 (2014) 「한영번역 교육에서의 영어코퍼스 활용 방안 연구 - COCA 활용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403-423.
- Baker, Mona (1992/2011) *In Other Words*, London: Routledge.
- Eggsins, Suzanne (2004)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Halliday, M.A.K. and C.M.I.M. Matth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Arnold.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a Communicato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ouse, Julian (1977/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Niemeyer.
- Huang, Zhi and Kim, Mira (2012) 'Theme Choices in Translation and Target Readers' Reactions to Different Theme Choices', *T&I Review* 2: 79-112.
- Kim, Mira (2008) 'Readability Analysis of Community Translation: A Systemic

- Functional approach', *Foru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6: 105-135.
- Kim, Mira, Gyung Hee Choi, James R. Martin, Kyeonghee Park and Gi-Hyun Shin,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Korean*, (forthcoming).
- Lim, Hyang-Ok (2005) 'Working into the B Language: A Condoned Taboo?', *Meta* 50(4).
- Martin, James R. and David Rose (2007) *Working with Discourse. Meaning Beyond Clause*, London & New York: Continuum.
- Munday, Jeremy (2000) 'Us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s an Aid to Translation between Spanish and English: Maintaining the Thematic Development of the ST', *Revista Canaria de Estudios Ingleses* 40: 37-58.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ark, Ock-Sue (2007) 'Analysis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Schools', 『번역학연구』 8(1): 379-407.
- Seleskovitch, Danica (1994)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second revised edition. Washington D.C.: Pen and Booth.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rosborg, Anna (2002) 'Discourse Analysis as part of Translator Training', in Christina Schäffner (ed) *The Role of Discourse Analysis for Translation and in Translator Training*,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9-52.
- Yeom, Haengil (2001)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Program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번역학연구』 2(2): 167-186.

[부록 1. 원문 1]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생애선택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라는 개념이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3년간 펼친 이 조사에서 4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15위)과 싱가포르(24위)보다는 한참 낮고, 일본(46위) 바로 아래다. 이유는 사회적 지지, 부패 인식 그리고 생애선택자유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생애선택자유가 낮은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한 계단 높은 일본의 경우 생애선택자유지수가 0.5로 나왔다.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는 0.6~0.7에 가깝고, 유독 낮은 미국도 0.55인데 우리는 0.33에 그쳤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 중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생애선택자유지수를 보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정도밖에 없다.

행복지수 비교 연구를 담당한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원래 이 문항은 저개발 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르다. 1인당 GDP는 선진국에 못지않고, 건강수명은 오히려 행복지수 1위인 스위스를 넘는 수준이다. 조병희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물질적·신체적 수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같은 질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389100001> (수업 용도에 맞게 일부 내용 조정)

## [부록 2. 원문 2]

**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3.2%→3.0%로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3.0%로 낮췄다. 또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규모 내수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장률이 2.6%로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견돼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발표한 3.2%에서 0.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에서 1.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장민 조사국장은 “올 세계경제가 당초 봤던 것보다 둔화되는 등 글로벌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성장률도 당초보다 0.1% 포인트 낮춘 2.6%로 제시됐다. 이는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 국장은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데 따른 기저효과, 수출·수입 부진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 저조, 지난해 11월 많은 비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은 3분기(1.3%)보다 크게 낮은 0.6%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93861&code=11151100> (수업 용도에 맞게 일부 내용 조정)

[Abstract]

**The Concept of Thematic Development Applied to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English Translations: Focusing on Issue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Professional Translators' Renditions**

Choi, Gyunghee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Korean-English translations of newspaper articles rendered by undergraduate students to improve their translation abilities as well as their English. In Korea, translating into English as a B language is not only a possible option but can lead to a more lucrative career than the other direction. However, there seems to be little literature available on how to teach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particular for undergraduate students, leaving a big gap between the dire need and the reality. To help narrow the gap, this paper uses as theoretical framework the concept of theme, particularly thematic development and marked themes, as explained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Eggins 2004, Martin and Rose 2007). The main data include two Korean news articles, their translations by 12 undergraduate students and two professional translators' renditions of the same source tex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udents' translations show that, unlike the professional translators' work, they tend to preserve the sentence sequence of the Korean source texts, thus failing to follow thematic development, in particular marked theme, in the English texts.

▶ Key Words: Korean-English translation, undergraduate student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entence sequence, thematic development

최경희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gchoi@pt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체계기능주의언어학, 커뮤니티 통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